

“앞으로 더 잘 하라” 임기 초반 단체장 후한 점수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광역·기초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민선 5기가 시작한 지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단체장들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장의 경우 과거 직무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0~50% 선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이번 강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남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는 지역특성상 농촌이 대부분인데다 지역민과 직접 접촉 접촉하는 민원업무가 적은 탓에 광주시장 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3선 단체장들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단체장들의 성적표도 크게 엇갈렸다.

◇광주=광주시민들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강운태 광주시장(59.5%), 5명 구청장(평균 58.

■ 광주·전남 단체장 직무평가 분석

기대감 반영 ... 직무수행 긍정 60% 넘어 3선·총선 준비 단체장들 엇갈린 성적표

8%)들에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체로 또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강운태 시장이 30.4%로 높았고, 5명 구청장의 평균은 25.9%였다.

◇전남=전남도민도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총 1만 명의 도민들이 응답한 전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박준영 전남지사(64.0%)를 비롯, 22명의 시

장·군수(평균 63.0%) 모두 60%가 넘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박준영 전남지사(23.5%)가 시장·군수(평균 27.9%)보다 낮았다. 이는 전남도보다 일선 시·군에서 지역민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업무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3선 단체장 성적표 엇갈려=광주·전남 자치단체장 중 3선 단체장들의 직무수행 평가는 크게 엇갈

렸다.

광주 자치단체장 중 3선인 유태명 동구청장은 응답자의 과반 이상으로부터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5개 구청장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전남은 5명의 3선 자치단체장 중 김종식 완도군수와 황주홍 강진군수가 22개 자치단체장 중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종득 목포시장과 이성

웅 광양시장, 서삼석 무안군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식 군수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1.2%로, 3선 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데다 22개 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도 이명용 장흥군수와 정기호 영광군수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황주홍 군수도 군민장학기금 불법 조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직무수행평가에서 69.8%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종득 시장은 ‘잘 하고 있다’(49.3%)와 ‘잘 못하고 있다’(47.0%)는 평가가 엇비슷했다.

이성웅 광양시장도 59.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전남 22개 자치단체장의 평균(63.0%)을 크게 밑돌았다.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서삼석 군수 또한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이 54.4%로, 평균을 밑돌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명 중 6명이 시정 만족 ... 남구 높고 광산구는 낮아

강운태 광주시장



62·민·초선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강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9.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21.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37.9%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0.4%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49.6%)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50%~60% 이상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강 시장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남구 주민 62.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가장 높았던 반면 광산구는 ‘잘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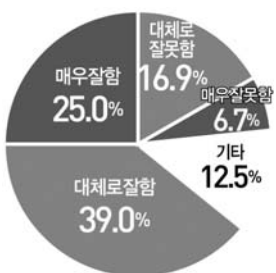
다’는 응답이 55%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최근 U대회 수완수영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연령층 “잘 한다” 긍정평가 ... 동부권 상대적 인식

박준영 전남지사



64·민·3선



박준영 전남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전남도민 64.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23.5%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응답은 12.5%였다.

6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3.9%가 나왔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50%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박 지사의 고향인 영암에서 긍정적 평가가 80.5%로 가장 높았고, 전남 서부권의 신안(74.7%)과 진도(70.4%)에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반면 전남 동부권인 여수(58.2%)와 순천(50.3%), 광양(57.5%) 등에서는 박 지사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 중부권 지역에서는 담양(55.2%)과 화순(59.6%)지역 주민들이 박 지사의 직무를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평가했다.

유태명 동구청장



67·민·3선



총장축제 성과 중·장년층 긍정

3선임에도 40·50·60대에서 50%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관료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 등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30대의 긍정평가는 낮았지만, 이는 총장축제 등의 성공에도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민원이 많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식 서구청장



63·무·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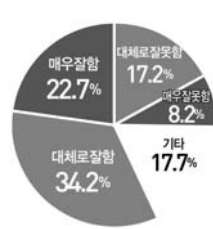
“잘한다”가 “잘못한다” 2배 넘어

지난해 10·27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무소속 김 청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서구민의 59.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 확보 문제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60%에 가까운 긍정적 평가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최영호 남구청장



46·민·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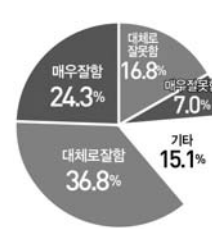
남구민 57% “일 잘하고 있다”

40대 초선인 최 청장에 대해 남구민 56.9%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구가 강운태 시장의 지지 기반인데다 최 청장이 강 시장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0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42.5%)는 평가가 3.6%포인트 더 높았다.

송광운 북구청장



57·민·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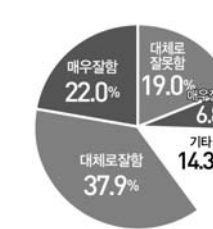
5개 구청장 중 만족도 가장 높아

재선인 송 청장은 관료 출신답게 광주 5개 구청장 중 행정수행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구민과 공무원들로부터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송 청장에 대해 61.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48·민·초선



모든 연령층 절반 이상이 긍정적

광산구민 10명 중 6명이 민 청장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임기 초반, 구청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적인 구정수행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20대(61.3%), 30대(55.4%), 40대(59.0%) 등의 젊은 층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SINCE 1982

www.kjhr.com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